해외출장 보고서

Ⅰ. 출장 개요

<table>
<tr><td>출장목적</td><td colspan="8">○ 다문화 관련 정책에 대한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책추진에 시사점 도출
- 특히 이중언어 등 자녀 교육 관련 운영 사례 등 벤치마킹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간 합동 연수를 통하여 기관간 연계·협력 및 다각적 관점에서의 효율적인 정책개선 방안 도출</td></tr>
<tr><td>출장동기 및 배경</td><td colspan="8">○ 다문화정책 관련 부처, 지자체 등 정책 추진체계, 다문화 진행과정에 따른 이주민 수용·통합정책의 추진 현황, 이주민의 정착 및 교육·취업 등 분야별 지원정책 현황 및 체계 등 조사</td></tr>
<tr><td>출장기간</td><td colspan="8">’15. 11. 18(수)～’15. 11. 26(목) (7박9일)</td></tr>
<tr><td>출 장 국</td><td colspan="8">호주, 뉴질랜드(2개국)</td></tr>
<tr><td rowspan="4">출 장 자</td><td colspan="2">소 속</td><td colspan="2">직 급</td><td colspan="2">성 명</td><td>성 별</td><td>연 령</td></tr>
<tr><td colspan="2">다문화가족사업본부
센터지원팀</td><td colspan="2">3급</td><td colspan="2">장00</td><td>여</td><td>48세</td></tr>
<tr><td colspan="2">다문화가족사업본부
센터지원팀</td><td colspan="2">5급</td><td colspan="2">민00</td><td>여</td><td>34세</td></tr>
<tr><td colspan="2">다문화가족사업본부
인식개선사업팀</td><td colspan="2">5급</td><td colspan="2">최00</td><td>남</td><td>36세</td></tr>
<tr><td rowspan="4">출장경비</td><td rowspan="2">성 명</td><td rowspan="2">계</td><td rowspan="2">항공운임</td><td colspan="3">체 재 비</td><td rowspan="2">준비금 및 기타</td></tr>
<tr><td>일 비</td><td>식 비</td><td>숙박비</td></tr>
<tr><td>장00</td><td>₩3,404,175</td><td>₩1,966,800</td><td>₩314,420</td><td>₩461,149</td><td>₩627,676</td><td>여행보험료
₩34,130</td></tr>
<tr><td>민00</td><td>₩3,192,002</td><td>₩1,966,800</td><td>₩275,991</td><td>₩387,785</td><td>₩529,856</td><td>여행보험료
₩31,570</td></tr>
<tr><td>최00</td><td>₩3,195,092</td><td>₩1,966,800</td><td>₩275,991</td><td>₩387,785</td><td>₩529,856</td><td>여행보험료
₩34,660</td></tr>
</table>

1. 출장일정

일자	지역	교통편	시간	일정
제1일 11. 18(수)	인천 오클랜드	KE129	17:00	○ 인천 출발
제2일 11. 19(목)	오클랜드		08:10 15:00	○ 오클랜드 도착 ○ Chinese New Settlers Service Trust 방문
제3일 11. 20(금)	오클랜드		13:30 15:30	○ 뉴질랜드 소수민족부 방문 ○ Shakti Community Council Incoporated 방문
제4일 11. 21(토)				○ 연수단 정책간담회 (질문자료 정리 및 토론)
제5일 11. 22(일)	오클랜드 시드니	NZ105	16:05 17:40	○ 오클랜드 출발 ○ 시드니 도착
제6일 11. 23(월)	시드니		10:30	○ 다문화 원스톱서비스센터, MOSAIC 방문
제7일 11. 24(화)	시드니		11:00	○ 뉴사우스웨일즈주 다문화부 방문
제8일 11. 25(수)	시드니		10:00 14:00	○ 캠시 공립 초등학교 방문 ○ centrelink 방문
제9일 11. 26(목)	시드니 인천	KE122	09:00 17:40	○ 시드니 출발 ○ 인천 도착

2. 방문기관 및 면담자

방문국가	방문기관	면담자
뉴질랜드	Chinese New Settlers Service Trust	Joanna Jensen (Social Work and Counselling team leader)
	뉴질랜드 소수민족부 The Office of Ethnic Communities	Anukool Sathu (Team Leader Stakeholder Capability)
	SHAKTI COMMUNITY COUNCIL INCORPORATED	Sara Chin (Operational Manager) Susan Kim (Social Worker)
호주	다문화 원스톱 지원센터(MOSAIC) Multicultural one stop Assistance and Information Center	김 선 혜 (모 자 이 크 센 터 운 영 코디네이터)
	뉴사우스웨일즈 다문화 부서 NSW Multicultural	Carmen Cordal Pernas (Project Officer) Donna Mosford (Senior Community Relations Advisor)
	캠시공립초등학교 Campsie public school	Sarah Jones(교장) 유은영(한국어교사)
	Campsie Centrelink	견학

Ⅱ. 연수 내용

1. 중국 신규정착자 서비스 재단(뉴질랜드)
(Chinese New Settlers Service Trust)

1) 방문개요

○ 방문기관 : Chinese New Settlers Service Trust

* 주소 : 15-19 Clifton Court, Panmure Auckland New Zealand

○ 방문목적 : 뉴질랜드 내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많은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는 기관으로 벤치마킹

○ 일시/장소 : '15.11.19(목) 15:00 / CNSST 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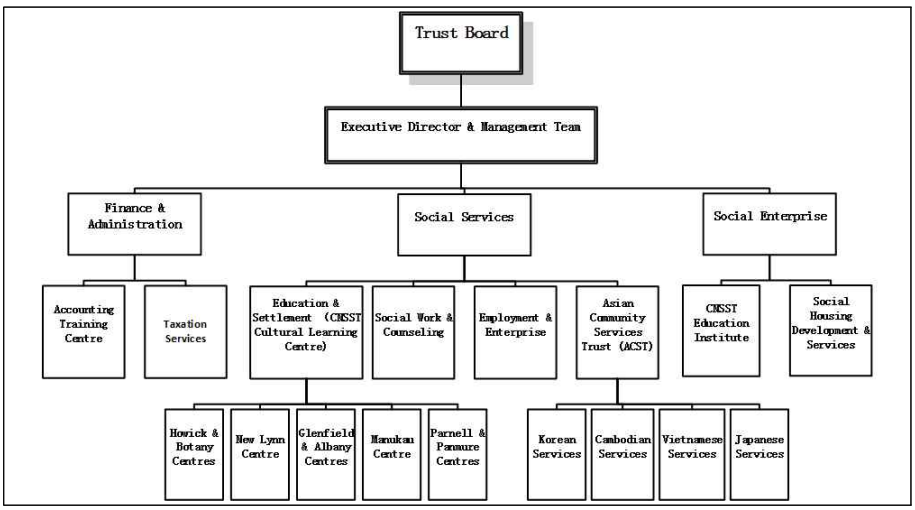
○ 면 담 자 : Joanna Jensen(한국계)(Social Work and Counselling team leader)

2) 기관 현황

(1) 개요

○ CNSST는 1998년, 당시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이 뉴질랜드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뜻이 있는 jenny wang과 몇몇의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에 이르렀고, 단순히 조기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음 세대들에게 아시아인으로서의 긍지와 자긍심·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역 복지사업 및 교육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음 (한국인 서비스는 2009년부터 시작)

(2) 조직 및 업무



3) 주요 면담내용

○ **(조직 현황 및 운영방법)** CNSST는 98년 서비스기관으로 법인 인가를 받았으며, 3개 부(재정・관리부, 사회복지부, 사회적기업부)로 분할 운영 중으로 25명의 전일제 근무자와 3명의 부장(팀장)이 조직을 이끌고 있음. 또한, 기관의 운영 예산은 60% 정부지원, 40% 수혜자 부담(일부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민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사회복지 및 상담 서비스, 고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교육 및 정착관련 서비스,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등 이민자 가족의 조기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도의 서비스를 제공 중임. 특히 housing 워크숍(부동산 매매와 렌트에 도움을 주고자 개최하는 지역 사회 모임), home safe(주거환경변화에 따른 지침서) 등 이민자 가족을 위한 섬세한 프로그램 등도 운영 중임

○ **(이민자 자녀를 위한 지원)** 토요학교를 운영하여 이민자 자녀들이 지역 사회 내에서 소속감 및 안정감, 혈통에 대한 자부심을 유지하며 뉴질랜드에 정착하게 하고자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음

○ **(신규이민자의 서비스 접근 경로 및 입국 후 관리체계)** 신규이민자들은 소수민족부, 혹은 각종 기관(경찰서, 각종 NGO단체, 지방기관, 병원 등), 교민사회 행사, 종교단체 등을 통해 CNSST에 접근하게 됨. 예를 들어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경찰서에 그 이력이 있는 이민자의 경우 경찰서에서 직접 CNSST에 연계신청을 하여 이민자가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또한, CNSST는 이민자와 면밀히 상담 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 뒤 최대 3년까지(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사후관리를 하여 서비스 제공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있음

○ **(예산현황 및 재정분담)** 기관 운영 예산의 60% 정부지원, 40% 이용자 부담(일부 후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부에서는 3년 주기로 서비스 제공의 실효성을 점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함





2. 소수민족부(The Office of Ethnic Communities)

1) 방문개요

○ 방문기관 : 소수민족부(The Office of Ethnic Communities)

* 주소 : 99 Albert Street Auckland

○ 방문목적 : 중앙정부의 이주민 지원 정책 현황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정책 추진에 시사점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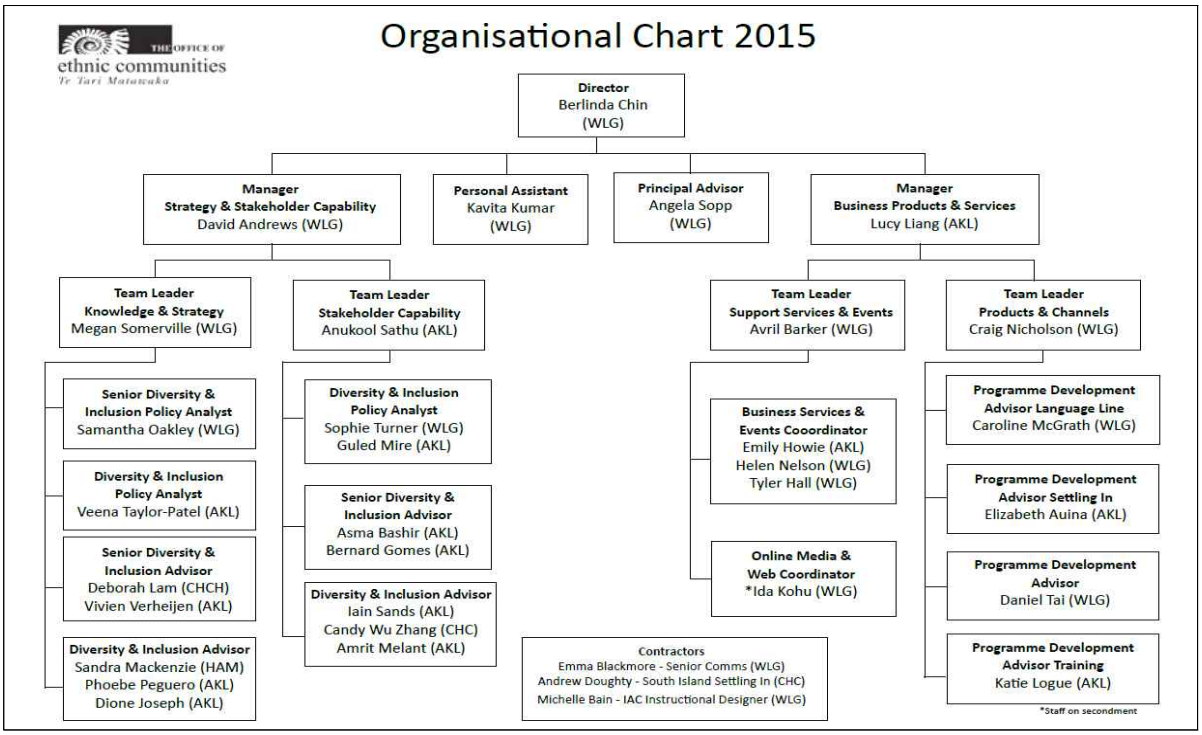
○ 일시/장소 : '15.11.20(금) 오후 1:30 / 소수민족부 회의실

○ 면 담 자 : Anukool Sathu(Team Leader Stakeholder Capability)

2) 기관 현황

○ 연혁 및 조직 : 2001년 내무부 조직으로 신설, 4개팀으로 구성

* Knowledge and Strategy, Stakeholder Capability, Support Services and Events and Products and Chann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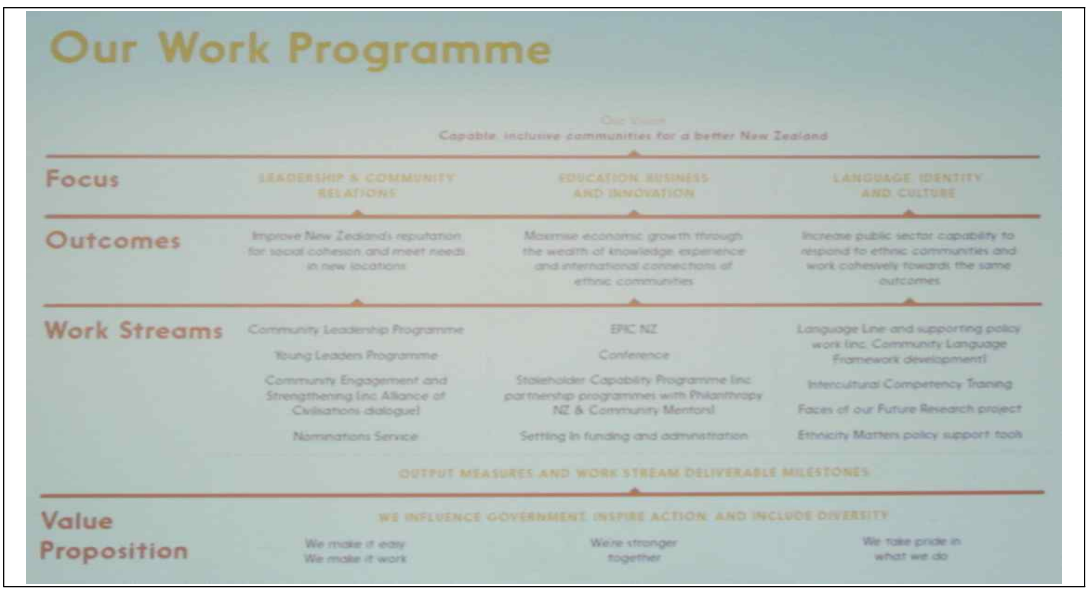
* 출처 : 뉴질랜드 소수민족부 홈페이지(http://ethniccommunities.govt.nz/story/about-us)

○ 비전 및 기능

- 비전 : Capable Inclusive Communities for a better NZ
  - 이주민의 성공적 정착이 뉴질랜드 미래의 원동력이라는 생각으로 이민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문제점은 줄여주는 것이 소수민족부의 목적이며, 공공기관에서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포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기능 : 소수민족 정책에 대한 조언, 정보제공 및 정책 안내 등

○ 주요사업

- 리더십 프로그램 : Youth Program과 Women Program 운영
  * 연간 56명, 25개 인종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 경제, 비지니스분야 : EPIC(Ethnic People in Commerce) NZ
- 무료전화통역 : Language Line(44개 언어, 국가기관 및 은행 등 민간부문에서 모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



3) 주요 면담내용

○ **(현황)** 뉴질랜드 전체인구는 4,242,048명이며, 이 중 이주민은 1,002,000명으로 OECD 국가중 인종적 다양성에서 1위에 해당함. 특히 14세 이하 젊은층의 경우 이주민이 22.8%로 65세 이상 2.6%에 비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함. 한국인은 35,000명으로 이주민 중 4번째 국가임(1위 중국, 2위 인도, 3위 필리핀). 오클랜드의 경우 전체 인구의 34%가 거주하며 젊은 인구가 더 많음

○ **(중점추진사업)** 리더십 프로그램에 포커스를 두는 이유는 현재 고위관리직 중 이주민의 비율이 높지 않으나, 20~30년 후에는 이민자가 전체 국민중 반 이상이 될 것이므로 정부 관리자도 비슷한 비율이 되어야 하므로 이들에게 그들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 16~24세 대상/9개월 과정(월 2회)/리더십과정, 정부업무, 마오리족문화, 장관과의 대화 등으로 구성

○ **(유사・중복문제)** 혁신부는 이민자의 초기정착을 위주로, 소수민족부는 초기정착 이후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며, 유사・중복문제에 대해 일부 비판도 있으나 서로 연계하기 위해 대화와 소통을 통해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반다문화 정서)** 이주민에 대한 지원이 역차별이라는 인식은 거의 없음. 오히려 이들의 장점을 활용한다면 국가에 이득이 되므로 90% 이상이 다문화에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 1년에 750명의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케이스도 많고, 이런 통계 등을 책으로 출판하는 등 홍보하고 있음

○ **(법률, 예산)** 다문화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은 없으나, 모든 법에 차별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음

4) 시사점

○ 뉴질랜드는 다문화 관련 별도의 법률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다양한 문화와 인적자원이 국가의 혁신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으로 이민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향후 20~30년 이후를 내다보고 이민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 관리자 중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성과 젊은층 대상 리더십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민자의 초기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음



3. SHAKTI COMMUNITY COUNCIL INCORPORATED

1) 방문개요

○ 방문기관 : SHAKTI COMMUNITY COUNCIL INCORPORATION

* 주소 : 153 Rathgar Road, Henderson

○ 방문목적 : 가정폭력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및 여성 이민자 정착지원을 위한 기관운영 방법 등 조사

○ 일시/장소 : '15.11.20.(금) 15:30~16:30 / SHAKTI 회의실

○ 면담자 : Sara Chin(Operational Manager)
Susan Kim(Social Worker)

2) 기관현황

○ 개요

- 1995년 Farida Sultana와 7개의 다른 민족 여성 이민자에 의해 Shakti Asian Women's Support Group Trust라는 이름으로 오클랜드에 설립.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국가 여성과 가족의 필요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Shakti Community Council Inc. 로 재구성
- Shakti는 특히 여성의 개발, 역량강화 및 가정폭력 개입, 예방 및 인식에 초점을 맞춘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비영리 단체로 여성, 아동 및 아시아 아프리카와 중동 출신의 가족을 위한 문화적 지원 서비스 전문 기관
- 이주민과 문화적 억압의 세대간 전이로 인한 문제를 인식하고, 소수민족 사회의 가정폭력에 대한 문화적인 수용에 도전하여, 성평등과 사회 변화를 위해 노력하며 여성의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교육 및 생활교육 프로그램 제공

○ 조직 및 업무

- (조직) 설립자인 Farida Sultana를 포함 약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자원봉사자
- (주요업무) Refuge(여성 보호소) 2곳과 women center를 운영. refuge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여성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하며, 이후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강간에 의해 강압적인 결혼을 강요받는 여성 청소년이 머물 수도 있음. women center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법적 지원, 상담, 의료지원, 연구임대주택 지원 연계 등의 서비스 제공

○ 주요 회원기관 및 서비스 내용

- Shakti Asian Women's Centre Inc. : 24시간 전국 위기 전화(0800 SHAKTI), 여성을 위한 drop in center, 봉사활동, 사례관리, 변호, 상담, 법적 지원, 통역, 생활기술 프로그램, 가정폭력 개입,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교육 및 법규 변화를 위한 활동
- Shakti Asian Women's Safehouse Inc. : 피난처 2개소(오클랜드), 가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치료, 상담, 법적 지원, 건강 지원, 식량 및 주택과 이민 지원
- Shakti Legal Advocacy & Family Social Services Inc. : 정착서비스, 가정폭력 인식 예방 및 개입, 자녀 학대 예방, 부부 상담, 가족 회의 및 청소년 이민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법적 지원
- Shakti Education Training & Advisory Company (SETAC) Ltd. : NZQA* 승인된 훈련, 생활기술 교육 프로그램, Second Chance 프로그램, 집단 치료 프로그램 등

  * NEW ZEALAND QUALIFICATION AUTHORITY(뉴질랜드 품질보증기관)
- Shakti Ethnic Women's Support Group (Central region) Inc. : 피난처, 가정폭력 개입 지원, 위기 대응, drop in service center, 영어 수업, 교통안전 프로그램과 기타 생활기술 프로그램
- Shakti Ethnic Women's Support Group (Central region) Inc. : 피난처, 가정폭력 개입 지원, 위기 대응, 지역 사회 기반 지원 , 영어 수업 , 교통 안전 프로그램과 기타 생활 기술 프로그램, drop in service center
- Shakti Ethnic Women's Support Group Wellington Inc. : 가정관련 서비스, 응급 서비스, 개별사회사업(case work)관련 사업
- Project Women Against Violence : 전 세계적으로 모든 세대 여성은 second class 시민이라는 모욕과 수치를 겪으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학대받아왔음. 사회는 전통적으로 이러한 행동에 대해 묵인 하고 그 결과 여성들과 아이들은 침묵 속에서 고통받아 왔음. 서양의 선도 운동가들은 이러한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론화하기 시작했으나, 불행하게도 같은 일은 세계 여러 곳에서 그렇지 못하며, 여성과 아이들은 여전히 침묵 속에서 고통 받고 있음.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지역 국가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전히 소외받고 불이익을 받고 있음. 가정 폭력은 모든 계층에 널리 퍼져 있으며, 직접 또는 간접적인 공격과 가정 폭력의 결과로 이들 국가에서 발생하는 사망자의 수는 지난 몇 년 동안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Farida Sulrana는 우선, 과거 가정폭력의 피해자, 봉사자와 함께 몇 아시아 국가에 여성의 피난처의 개념을 전파하고 있음. The Project titled Women Against Violence는 이러한 국가에서 여성이 가정폭력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함.

3) 주요 면담내용

○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원인)** 이주여성 가정폭력 대부분 복합적인 이유로 나타나며, 경제적인 원인보다는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경우가 많음. 이주여성 국가에 대한 문화적인 이해가 적어 시부모와의 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가 가정폭력의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음

○ **(가정폭력 이주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 40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이주 및 난민 지역 사회에 다양한 서비스 제공

- 폭력과(또는) 학대 상황의 여성을 위한 24 시간 다국어 위기 호출 서비스 (0800SHAKTI)
- Drop-in services
- 사례관리 서비스
- 폭력의 피해자와 그들의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숙박 시설인 피난처 서비스
- 법률 지원 서비스 및 법률 클리닉
- 긍정적인 양육 프로그램
- 가족 정착, 개별사회사업(case work),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 여성 폭력 생존자의 역량강화 및 자립을 위한 Second Chance Life Skills Programme
- 봉사활동을 포함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 **(이민자 이혼 등 해체 현황과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방안)** refuge 이용자는 성인기준으로 연간 700명, 전화상담 이용건수는 연간 27,000여 건으로 refuge 이용자는 대부분 가족해체를 경험하며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음

- 가족해체 예방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폭력 남편을 대상으로 비폭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기관의 운영방법, 재정지원 현황)** 정부지원, 기부금 및 이민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구체적인 후원 기관으로는 뉴질랜드 이민국의 아동, 청소년 및 가족(CYF), 사회개발부, 노동청, 내무부(복권/원가), LTNZ, 오클랜드 시의회, 마누카 시의회, Waitakere 시의회, Christchurch 시의회, Wellington 시의회, 인도의 The High Commission, 트러스트 자선 재단, Bay Trust, ASB Community Trust, ANZ 은행, Lion Foundation, Zonta Club 및 기타 개인 후원 등임

4) 시사점

○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가정 문제에 초점

- Shakti는 가정폭력 피해 이주민 여성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어, 여성 이주민들이 결혼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높음. 여성 이주민으로서 문화적인 차이와 관련된 가정폭력의 원인에 대해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문화적 차이와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음
- 즉, 문화 차이로 인해 가정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활동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은 이주여성에 대한 문화적인 이해가 낮아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나, Shatki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문제적 접근으로 가정폭력 이주 여성들에게 보다 적절하고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함

○ 이주여성 자원봉사자를 통한 운영

- Shakti에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25~30명의 이주여성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어 국가별 대상자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함.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대부분 모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구사하고 있어 영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 여성의 어려움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4. 다문화 원스톱 지원센터(Multicultural one stop Assistance and Information Center)

1) 방문 개요

○ 방문기관 : 호주 시드니 윌러비시 소재 모자이크
  * 주소 : Brown Street, Chatswood 12

○ 방문목적 : 효율적인 이민자 정착지원을 위한 센터운영 방법과 성공 요인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정책에 활용

○ 일시/장소 : '15.11.23.(월) 10:30~11:30/윌러비시 회의실

○ 면 담 자 : 모자이크센터 운영자(코디네이터) 김선혜

2) 기관현황

○ 개요

- 다문화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로 널리 알려진 모자이크다문화센터(MOSAIC Multicultural Centre)가 소재한 윌러비시는 어번 시드니 내에서도 노스 시드니에 위치
- 모자이크(MOSAIC)는'Multicultural One Stop Assistance and Information Centre'의 약자로 다문화 구성원들에게 one-stop의 정착생활 지원과 정보를 제공
- 1993년 11월에 처음 설립된 모자이크 센터는 지방의회 및 기타 조직들에 의해 비로소 법인화가 되었으며, 지역사회 단체였던 모자이크(MOSAIC)는 1996년에 채스우드 유스(Youth) 센터와 시설을 공유하기 시작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2000년에 MOSAIC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채스우드의 브라운 스트리트로 이전하였으며, 현재는 다문화 사회를 위한 지역사회 개발의 거점지로 성장
-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경우, 호주 지역에서 출생한 인구가 평균 30%인데 반해, 윌러비 시는 비호주 지역에서 출생한 인구가 44%로 NSW주 내에서도 다문화 구성 비율이 높으며, 윌러비 시청의 다문화 정책은 모자이크라는 다문화 종합 지원·정보 센터가 대표적인 사례임

○ 조직 및 업무

- 조직 : 운영책임자(코디네이터) 1명, 파트타임 행정업무자 1명, 나머지는 자원봉사자 100여명
- 업무 : 센터의 운영상황을 지방정부에 보고 또는 연락체계 유지, 다문화 관련 단체들과의 네트워킹, 자원봉사자 관리, 언어반・레저반・교양기술 습득반・방학중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저소득자를 위한 세무신고 및 서비스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각종 문화축제 및 정보세미나 개최, 경찰서・학교・도서관 등 유관기관 관리 등

○ 운영실태

- **(원스톱 프로그램)** 모자이크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렵고 다문화생활 서비스가 복잡하여 겪어야 했던 불편함을 '한곳에서 해결해 줌(one stop)'으로써 신속·편리한 서비스 제공
  · 이민자들의 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는 것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통역 서비스, 유익한 강연 제공, 소수민족의 단체 활동, 세금 및 건축 관련 서비스까지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
- **(지속적인 소통)** 모자이크센터에서 일하는 풀타임 직원 1명이 회원들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도 있지만 무엇보다 회원들의 목소리를 시청으로 연결시키는 소통 창구 역할 수행
  · 직원은 다문화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목소리를 정리하여 모자이크 운영 주관부서인 커뮤니티 서비스부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부서장은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목소리가 시정에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함
- **(지속가능한 전문적인 자원봉사체제 구축)** 모자이크 센터가 적은 직원으로도 잘 운영될 수 있는 데는 모든 프로그램이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 중 50명에서 60명 정도의 정기적인 자원봉사자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며, 자원봉사자들의 대부분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 이들이 시청과 다문화 사회를 연결해 주는 가교 역할을 담당
  · 또한, 실력과 수준이 높은 자원봉사단은 단순하게 사무실 운영을 지원해 주는 일뿐만 아니라 예술과 공예교사, 댄스와 운동 강사, 다민족 언어교사, 세금 상담사 등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로 이루어져 질 높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하고, 모든 자원봉사자들은 센터의 코디네이터가 모집하고 별도 교육 실시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매년 12개 민족 커뮤니티가 참가하여 '다문화 의상쇼'를 통해 그들의 문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외에도 총 45개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중

3) 주요 면담내용

○ **(조직 현황(인력 등) 및 운영방법)** 모자이크 다문화센터는 풀타임 운영자 1명과 파트타임 행정업무자 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두 담당자 모두 카운슬 행정업무를 기반으로 하면서 다문화 서비스 제공

- 윌러비시에서 다문화지역 공동체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으로, 1993년에 하나의 지역사회조직으로 시작하여 3년후 카운슬 서비스 기관이 되었음
- 현재는 지역사회 문화활동과 여가선용을 전담하는 주 기관으로 자리매김

- 다문화 공동체의 화합, 용이한 접근성과 공평성,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폭 넓은 참여와 더불어 건강한 생활과 평생교육을 도모

○ **(이민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센터 운영자는 1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50여개의 단체활동 운영

- 영어반, 레저반, 각종 소수민족그룹 그리고 각종 언어반, 교양기술 습득반, 방학중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저소득자를 위한 세무신고 서비스 및 그 외 각종 문화축제 및 정보 세미나 등
- 센터에서 제공하는 4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영어, 외국어 배우기, 전통문화 교류그룹, 여가활동반이 있으며, 본 센터에서 이민자들은 자신들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어반에 등록
- 그 외 여러 소수민족 그룹은 같은 문화배경을 연결고리로 교류하며, 각종 새로운 교양기술 습득과 정부기관과 지역서비스 기관의 정보교류
- 또한, 각종 문화교류를 경험하고, 다문화 단체들간의 장벽을 허물수 있는 다양한 축제 및 소수민족 모임도 운영하고 있고,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능과 경험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자원봉사자가 되기도 함. 이러한 주요 프로그램에 더하여 방학중 어린 학생들과 그 부모들 및 보호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및 재정분담)** 윌러비시의 다문화서비스 부문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재정과 행정 모든면의 전적인 지원

○ **(신규이민자의 서비스 접근 경로 및 입국 후 관리체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센터를 인지하게 됨. 이미 이민온 가족이나 지인들이 모자이크 센터의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혜택을 받은 후 새로운 사람을 소개시켜 주고 있으며, 본 센터 또한, 병원의 사회복지사나 가족지원업무 담당 기관이나 고용담당 기관등과 연계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강좌에 등록하고 있음.

○ **(윌러비시가 다문화지원에 있어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는 이유)** 1993년 설립이래 22년간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정치적인 환경과 다문화 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서비스의 영역확대를 해 가면서 지속적인 번창

- **(성공요인 1)** 시로부터의 지속적인 지원 : 시장과 이하 직원의 지역사회 행사와 축제 참여, 자문, 격려 등 진심어린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음
- **(성공요인 2)**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헌신적인 팀구성 : 100명이 넘는 자격을 갖춘 열정적인 자원봉사자들이 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시간, 에너지, 열정, 지식 그리고 기술들을 지역사회에 기꺼이 나누고, 이런 이타적이고 무보수 봉사를 지역사회에 기부하는데 큰 성취감을 가짐
- **(성공요인 3)** 지역서비스 단체와 지역사회 그룹간의 강한 연대감 공동체 연대형성

· 내부, 외부 지역사회 그룹과 함께 행사를 주관하는데 예를 들어 3월의 화합의 날, 6월의 다문화 춤 파티, 9월의 봄 축제와 12월의 크리스마스와 송년 파티 등이며, 그로 인해 그들이 프로그램의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윌러비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됨

· 지역사회 그룹과의 뛰어난 팀워크에 대한 많은 긍정적인 의견을 듣고, 그리고 그 지역사회 그룹들은 시와 함께 일하는 것에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자긍심은 폭넓은 차원에서 지역서비스와 연계된 공동체 형성은 비용과 자원 이용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일 수 있도록 도움

· 다른 카운슬 서비스단체들과 지역 경찰서, 보건단체, 교육단체, 소수민족 단체들과 함께 공동주관 엑스포나 교육세미나, 인지도 향상을 위한 행사 등을 제공

- **(성공요인 4)** 독자적인 시설을 갖추고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른 기관과의 장소보유를 위한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 센터의 자율적 권한확보와 혁신 가능

· 물론, 이 모든 것을 잘 운영하기 위해 좋은 운영진이 필요함. 하지만 4가지 요인(카운슬의 지지, 자원봉사자의 헌신, 지역사회 그룹들과의 팀워크, 그리고 독자적인 시설)이 서로 만나 행복한 결실을 맺고 있음

4) 시사점

○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2016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30년 이후에는 전체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 3,704만명을 정점으로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명이 노인 8명, 어린이 2명 등 10을 부양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이민자 유입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으로 1980년대 체계적인 준비없이 수용하기 시작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외국인 주민수가 총 인구 51,327,916명의 3.4%인 1,741,919명으로 늘어났으며,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등만 195개국 30만명, 다문화가족은 82만명에 이르렀음.

○ 우리나라 국민들의 다문화 수용성이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언어적,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민자들이 경제적인 자립과 문화적인 차별의식을 느끼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한 문화적 다원주의 또는 다문화주의 정책이 필요함

○ 한편, 다문화 사회의 성공요인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과 관심은 물론 정주민들의 역량과 자질,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 저변이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과 포용성이 높아야 각각의 다문화요소들을 흡수하여 사회를

발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도 요구됨

○ 따라서, 정부기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단체 등과의 지속 적인 소통과 모니터링을 통한 다문화 의견수렴 및 반영,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타 문화나 인종, 다름과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문화의식, 저비용 고효율의 다문화 지원시스템 구축, 다양한 분야의 축적된 사회경험을 가진 양질의 성숙하고 두터운 자원봉사자 층 형성, 자원 봉사에 대한 높은 자긍심과 저변확대가 필요함



5. 뉴사우스웨일즈 다문화부서(Multicultural NSW)

1) 방문 개요

○ 방문기관 : 뉴사우스웨일즈주 다문화부서
(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 for a multicultural NSW)

* 주소 : 175 Castlereagh st. Sydney (Board room, Level 7)

○ 방문목적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다문화정책현황 및 이민자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현황 조사 등

○ 일시/장소 : '15.11.24(화) 11:00/NSW 다문화부서 회의실

○ 면 담 자 : Carmen Cordal Pernas(Project Officer)
Donna Mosford(Senior Community Relations Advis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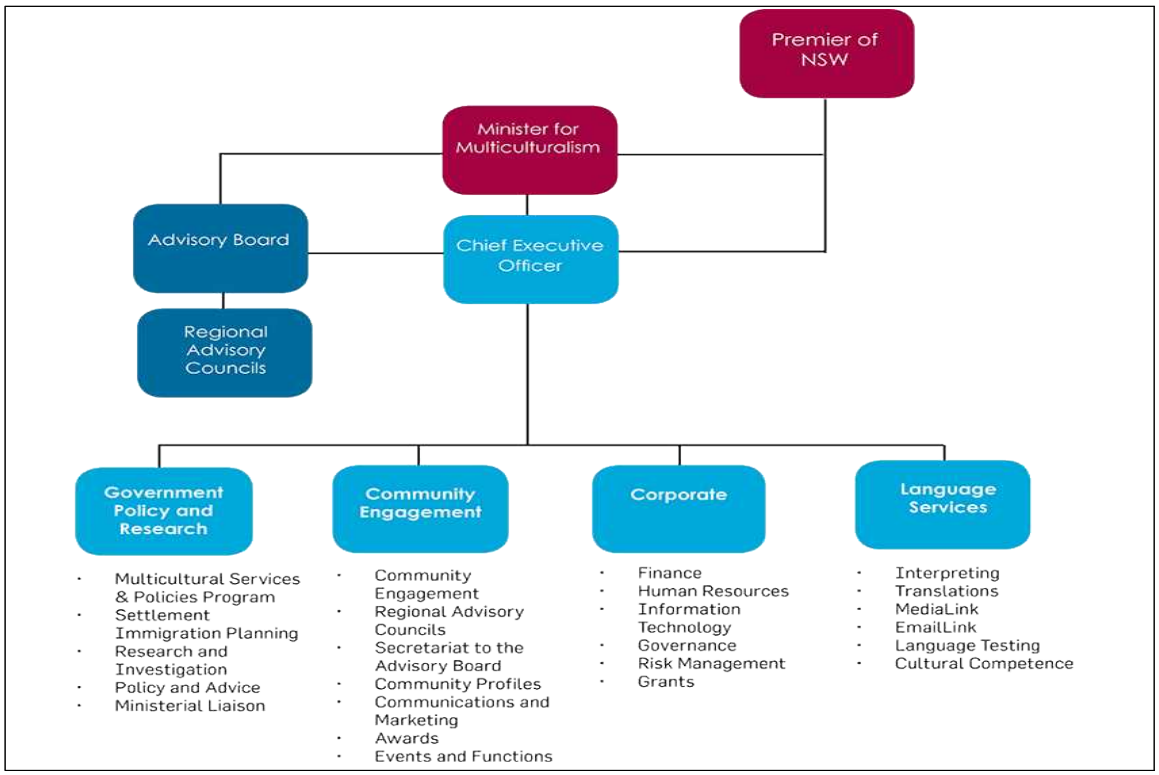
2) 기관현황

○ 개요

- 뉴 사우스 웨일즈주 다문화부서는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공공 기관, 비정부 서비스단체 및 민간 부분과의 계약을 통해 지역내 사회관계를 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화합과 사회통합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한 중간 기관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해 조율하고, 상담 및 다양한 지역사회와 결합하며,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분야와의 협력을 하고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100개 이상의 언어 사용으로 국가의 문화와 언어적 다양성을 추진하고 있음

○ 조직 및 업무

- 뉴사우스웨일즈주를 위한 공동체관계 위원회 (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for a multicultural NSW: CRC)가 담당하며 2000년 뉴사우스웨일즈주 공동체관계 위원회 및 다문화주의 원칙법(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 and Principlesof Multiculturalism Act 2000 (New South Wales))에 따라 다문화주의 원칙을 이행하고 있음
- 2008년 위원회는 뉴사우스웨일즈주 지역발전성과 공동으로 다문화주의 원칙의 지역적 이행(Implementing the principles of multiculturalism locally)'계획을 수립하였고 2012년 뉴사우스웨일즈 공동체관계 행동계획 (NSW Community Relations Plan of Action 2012)은 정책적, 법적, 계획틀의 지원 구축을 통한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 장려를 위한 리더쉽 함양, 공동체 화합, 사회정의 의무틀 내에서의 접근성 및 평등, 경제적 및 문화적 기회부여를 4대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3) 주요 면담내용

○ **(이민자 현황)** 뉴사우스웨일즈주는 세계에서 가장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지닌 도시로서, 범문화적 조화를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인구는 6백9십만 명 정도이고, 그중 44.7%는 외국태생 이민자이며 25.7%는 자국태생 이민자일정도로 다민족 도시라고 할 수 있으며, 전세계 225개국의 이민자들이 그들의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213개의 다양한 언어가 소통되며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음

○ **(다문화 지원정책의 목표 및 방향, 법령 및 제도 현황)** 1980년대 이후 다문화 정책이 활발하여졌고 1989년 7월 다문화 오스트레일리아를 향한 국제적과제를 채택하였지만, 연방차원에서는 논란 끝에 다문화주의법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공동체관계위원회 및 다문화주위 원칙 법률 2000을 제정하여 뉴사우스웨일즈 지역 주민들이 서로 다른 언어, 종교, 인종 및 민족적 배경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주민의 평등한 권한 및 책임을 도모하고 있음

○ **(연방정부,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 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호주에서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단체 간의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기본적으로 연방정부는 이민관리와 시민권 관련 정책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지방정부와 시민단체는 다문화(사회통합) 관련 정책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리고 연방과 지방 각각의 경우에 대해 업무 조정 및 견제기구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우선 주 정부는 연방의 이민정책(특히 기술이민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어떤

이민자를 해당 지역으로 받아들일 것인지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 밖에 이민자에 대한 다문화주의적인 사회통합(지원) 정책은 주로 지방(주) 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 때 지방(주) 정부는 해당 지역 내 이민자 지원센터(Migrant Resource Centre)와 연계하여 이민자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음

- 호주에서는 각 주와 자치주는 독자적으로 주정부를 구성하고, 별도의 입법. 행정. 사법부를 보유하고 있음. 호주에서는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관리하는 것은 연방 정부가, 이민자를 지원하고 통합하는 정책은 주로 주정부가 담당하고 있음. 즉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이민과 시민권 관련 업무를, 주정부 차원에서는 다문화주의적인 이민자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므로 다문화 관련 법률과 민족차별금지 법 등은 연방 차원에서는 제정되어 있지 않고 주정부 차원에서 제정되어 있음
- 특히, 뉴사우스웨일즈(NSW)주에서는 2001년 '지역관계위원회 및 다문화주의 원칙법 2000(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 and Principles of Multiculturalism Act 2000(NSW))이 제정되어 다문화주의, 종족관련 문제, 문화적 다양성, 지역사회의 화합 등을 관장하고 있는 '지역관계위원회(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의 구성과 목적, 기능과 활동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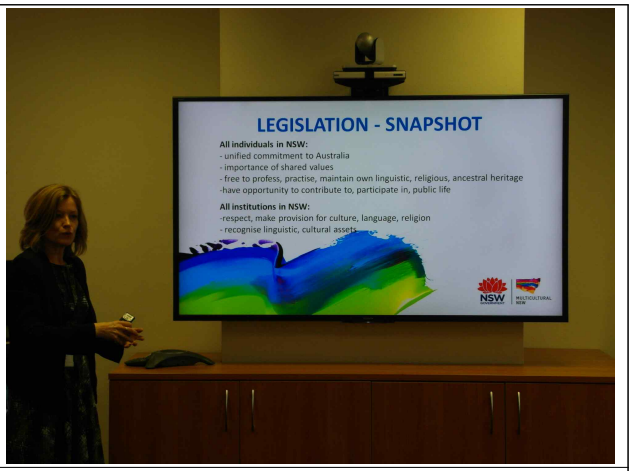
○ **(이민자 자녀를 위한 영어 교육 정책)** 대표적인 호주의 아동·청소년 대상 영어 교육으로 연방 정부의 CMEP(Child Migrant English Program)이 있는데, 이는 정규 교육 기관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주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프로그램이 대표적임. 호주의 ESL 정책은 주 교육부에서 관할하나 연방 정부의 다문화 언어 정책의 영향을 받아 이민자가 많은 주에서는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진행됨.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학습자들의 영어 교육을 ESL 교사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 수준의 책임으로 파악하고 있음. Department of Education, Victoria(1997)에 따르면 ESL 과정이 해당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과 별도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전체의 교육 과정 속에 ESL이 유기적으로 흡수되도록 함. 따라서 ESL 교사는 담임 교사나 기타 과목의 교사 등과 협업하여 ESL 학생을 교육함. 뉴사우스웨일스 주 교육부의 경우, 초중등학교, 고등학교, 영어 집중 교육 기관(Intensive English Centres), 영어 집중 고등학교(Intensive English High Schools)를 대상으로 ESL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이 ESL 프로그램은 장기적이고 정규적인 차원의 지원 정책인 ESL Targeted Support Program과 단기적이고 비정규적인 차원의 지원 정책인 ESL New Arrivals Program으로 나누어 지는데, 두 경우 모두 ESL 대상자가 있는 학교 기관에 전문 ESL 교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ESL 대상 학생들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ESL New Arrivals Program은 전

문 ESL 교사가 파견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 새로운 ESL 대상 학생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운영되고 차후 장기적 지원 정책으로 전환되며 반인종주의 교육과 같이 다문화, 다언어, 다인종 사회에 대한 인식 교육도 함께 제공함

4) 시사점

○ 호주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이민자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개발되었으나 이후 국가건설과 사회결속 확보라는 보다 큰 목표로 확대되어 단일성 추구보다는 인종적 다양성을 위해 일하는 것이 사회적 화합과 개인의 복지를 위해 보다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음. 다문화주의 정책의 기획, 이행, 평가에 있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등 모든 단위의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성에 관한 문제 인식,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있어 공동체 부문,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추진되고 있음. 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한 초당적 정치적 지원, 다문화주의의 목표와 목적에 대한 대중들과의 명확한 소통과 정책의 전국적 적용 등이 다문화주의 정책의 효율적 운영과 다문화주의에 대한 시민적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6. 캠시공립초등학교(Campsie public school)

1) 방문 개요

○ 방문기관 : 캠시초등학교(Campsie public school)

* 주소 : Evaline St. Campie

○ 방문목적 : 다문화 자녀를 이중언어 다문화인재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 추진 시 시사점 도출

○ 일시/장소 : '15.11.25(수) 10:00/교장실

○ 면 담 자 : Sarah Jones(교장), 유은영(한국어교사)

2) 기관현황

○ 연혁

- 호주가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주요 국가 언어를 어렸을 때부터 습득하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2010년부터 이중언어 몰입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음(총 4개 학교에서 운영)

○ 조직

-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등 10개 이중언어반 운영
- 총 760명의 학생 중 230명이 이중언어반 수강
- 한국어 교사는 총 7명(호주 출신 2명, 한국 출신 5명)

3) 주요 면담내용

○ **(목표)** 이중언어수업은 해당 언어와 문화를 배우기 위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꾸준히 이중언어에 노출하도록 함으로써 졸업할 즈음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함

○ **(프로그램)** 역사, 과학, 미술 등 일반 교과과정을 하루에 한시간씩 이중언어로 배우고 있으며, 교실 벽면 곳곳에 한국어 그림판 등을 부착

○ **(효과성)** 이중언어수업을 듣는 학생이 여타 교과과목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중임

○ **(중도입국자녀)** 중도입국자녀의 경우는 영어전담교사를 통해 영어교육 등 적응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적응을 못하는 경우는 아이패드 등 기계를 활용하도록 하고, 보조선생님이 지도함. 별도의 반에서 따로 가르치기보다는 한 교실에서 한국어 가능한 아이들을 통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함.

○ **(학교내 차별)** 학교내에서 다문화 학생에 대한 차별은 큰도시는 큰 문제가 없으나, 도심 외 지역에서는 문제가 되어 있어, 연방에서 'Intercultural Understanding'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아시아 문화를 배우고, 다름을 인정하도

록 유도하고 있음

○ **(인식개선교육)** 교사의 경우 워크숍 등을 통해 이중언어를 배우는 기회가 있으며, 모든 교과목을 배울 때 호주에 대해 먼저 배우고 각국의 비슷한 사례를 비교하여 배우는 형태로 가르치고, 일상생활에서도 한국노래, 중국노래 등 다양한 국가의 음악으로 종소리를 바꾸고, 미술품 전시나 도서관의 도서 등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 시사점

○ 유치원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8년간 지속적으로 이중언어 및 문화를 학습하고, 일상생활이나 다른 교과수업 등을 통해서도 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음악, 미술, 역사 등을 자주 접하도록 함으로써 이주민 자녀를 이중언어 인재로 육성해 나가고 다른 문화에 대해 인정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열린 다문화사회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되고 있음



7. 센터링크 (Centrelink)

1) 방문 개요

○ 방문기관 : 센터링크(Centrelink)

* 주소 : 19-21 Angle Rd Campsie

○ 방문목적 : 지역주민 원스톱 복지서비스 지원기관으로서 운영현황 및 실제 이용 모습 견학

○ 방문일시 : '15.11.25(수) 14:00

2) 기관현황

○ 개요

- 국민들이 개별 부처가 제공하는 각각의 공공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각기 다른 기관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단 한곳을 찾아가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는 길이며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는 인식에서 하워드(Howard) 정부의 복지서비스 전달 재편의 일환으로 1997년에 최초로 설립
- 공공부문 제도설계의 주요 혁신의 하나로 평가되는 구매와 공급기능을 분리하여 정부 구매부처를 대신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주 정부의 핵심적인 서비스 전달기관

○ 인력 및 서비스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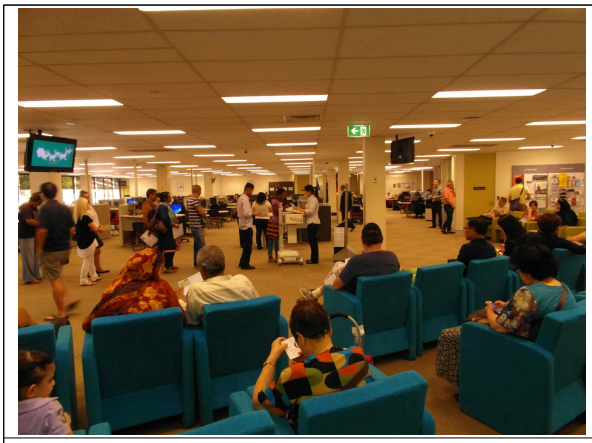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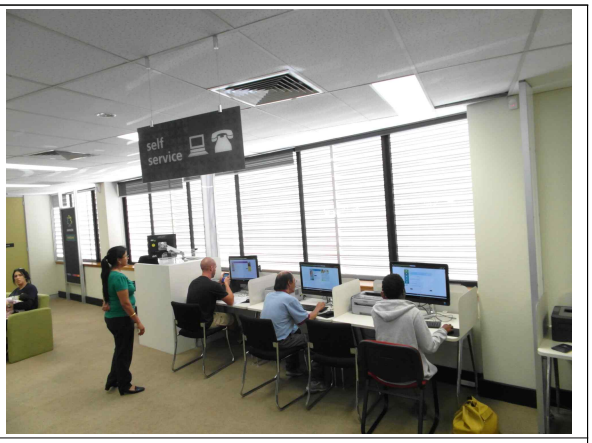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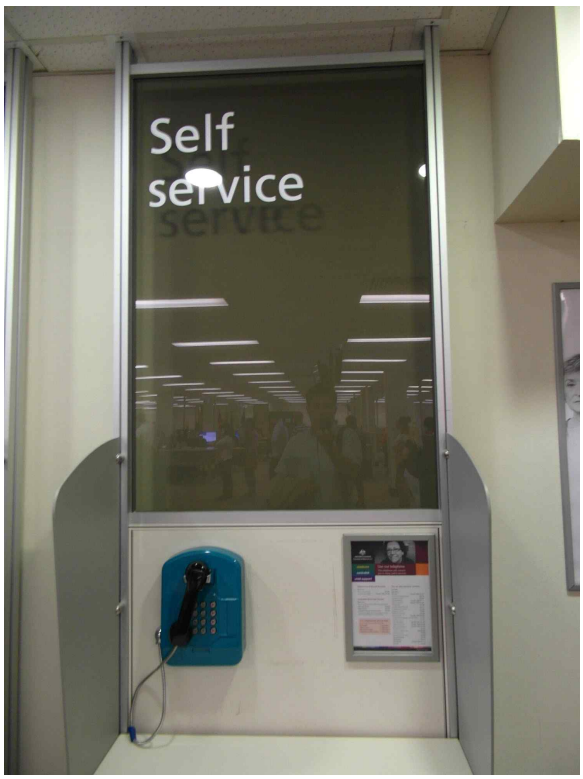
- 약 25,000명*의 인력이 약 710만명에게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2011년 기준)

* 대민 서비스 업무 17.6천명, 콜센터 4천명, IT 및 중앙조직 3천명('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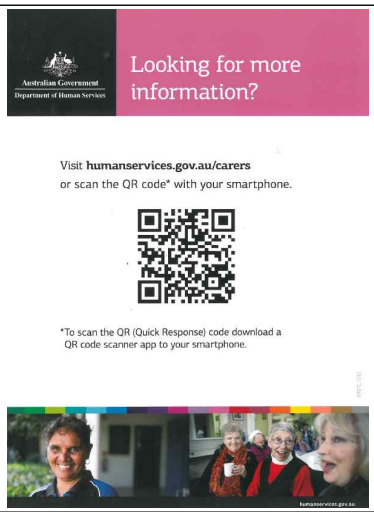
- 가족, 구직자, 호주 원주민, 오인, 장애인, 학생 등 다양한 대상 대상 온/오프라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이용 모습 및 안내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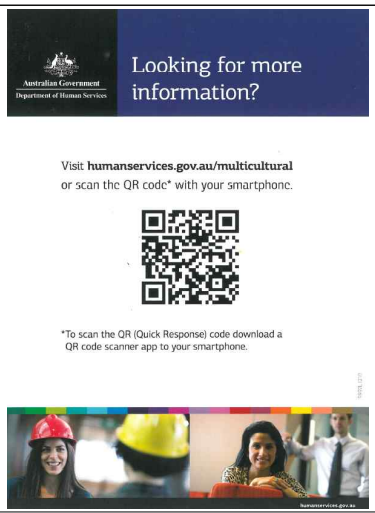
<서비스 이용 모습>

<table>
<tr><td></td><td>
</td></tr>
<tr><td>서비스 대기 공간</td><td>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신청장소
(상주인력이 신청 지원)</td></tr>
<tr><td>
</td><td>
</td></tr>
<tr><td>전화를 통한 서비스 신청장소
(상주인력이 신청 지원)</td><td>서비스 관련 각종 안내자료 비치 모습</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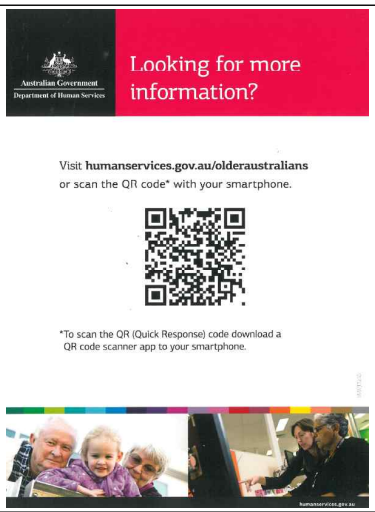
<각종 안내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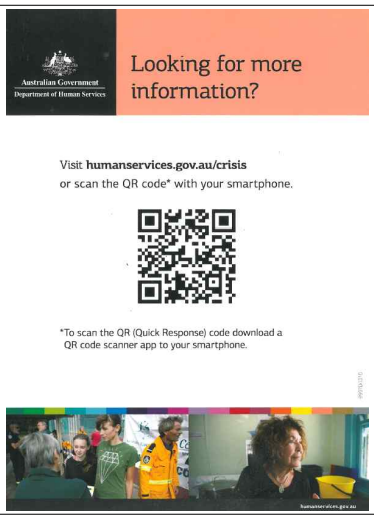
보호자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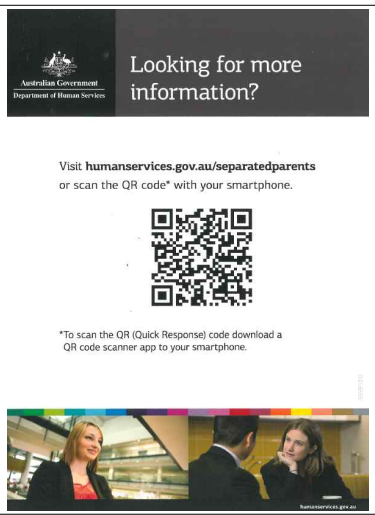
다문화 관련



노인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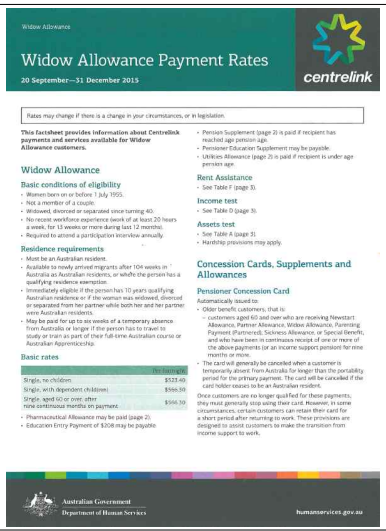
위기 관련



결별 부모 관련



학생 관련



이혼, 별거(女)수당 관련



사별 수당 관련



오지 거주 수당 관련





지역사회 내 교육(정보화) 안내





Ⅲ. 해외 출장의 효과

○ 다문화가족 정책의 선진 외국 사례 점검을 통한 시사점 도출 및 우리나라 정책에의 적용 방안 모색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중국 신규정착자 서비스 재단(CNSST)와 SHAKTI의 공통점은 이민자 스스로의 필요에 의하여 자생적으로 조직된 커뮤니티이며, 최초 대상으로 한 국가별 이민자의 지원을 넘어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민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 현재 두 기관 모두 기관 운영 재원의 일정부분을 중앙 또는 지방정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경찰, 병원 등 유관기관과의 밀접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정부의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보다 촘촘하고 정책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이러한 정부와 민간이 연계되는 모습은 두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호주 정부의 다문화부서, 윌러비시 모자이크센터 등의 방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우리 정부가 다문화가족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보다 밀접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주요 의사결정에 이민자 참여 노력)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다문화부서와 뉴질랜드 소수민족부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이민자가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것이다. 호주의 경우 다문화 관련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 다양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이 구축·운영되고 있으며, 뉴질랜드의 경우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민자 커뮤니티의 젊은이들이 뉴질랜드 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인구 중 이민자 비율이 호주, 뉴질랜드와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음에 따라 다양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의견이 표출될 수 있는 창구가 다양하게 열려있지 않으나, 2005년 프랑스 폭동 등과 같은 사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이에 따른 우리사회의 사회통합 비용을 낮추기 위한 투자로서 이민자들을 공식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사회와의 협조를 통한 정책 추진효과 제고)

- 사업담당인력 2명과 100여명의 자원봉사인력으로 운영되는 호주 윌러비시 모자이크 센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는 정책 추진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자긍심 향상, 지역사회 내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이에 우리 정부에서 지역 다문화프로그램 사업, 다문화가족과 멘토-멘티 결연 등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기관들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므로, 참여를 원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언제든지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배분해야 할 역할에 대하여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다양한 문화를 상호존중하는 교육 환경 조성)

- 자라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적 교육 환경 조성은 향후 우리사회가 투입해야 할 다문화수용성 제고와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비용 감소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캠시공립초등학교의 운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나라의 언어와 문화 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와 문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으며, 동시에 다른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는 훈련을 거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를 갖는다.
-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중언어 교육사업, 이중언어 사용환경 조성사업 등은 위와 같은 교육 환경 조성에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현재 다문화가족 부모와 자녀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비다문화가족 부모와 자녀에게도 확대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면서부터 다른 언어에 노출되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

- 다문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공통된 특징은 다양한 문화의 공존이 사회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된 인식이다. 국민의 90% 이상이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뉴질랜드와 다문화에 대한 초당적인 정치적 지지를 보내는 호주사회의 모습은 다문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는 가장 큰 추동력이 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다문화가족 정책을 위한 추진체계와 법적 기반을 갖추었고,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던 과거와 달리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그러나 2012년 발표된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결과, 문화공존에 찬성하는 국민은 36.2%로 유럽의 73.8%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다문화 정책에 대한 투자가 우리사회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다양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효과의 홍보, 다문화수용성 제고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우리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통하는 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